실제 · 가상의 경계 무너진 자리, 무엇이 남을까

미래 과학기술과 불교 – ② 가상현실(VR)과 불교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갤럭시S7 공개행사장. 이 자리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하드웨어와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로 세계 최고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을 구현하겠다."

이 말이 전해지면서 VR은 글로벌 IT 업계의 화두가 됐다. 실제 VR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미래 과학사업의 새로운 경제 먹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세컨드 라이프'를 아십니까

VR은 사이버 공간의 일종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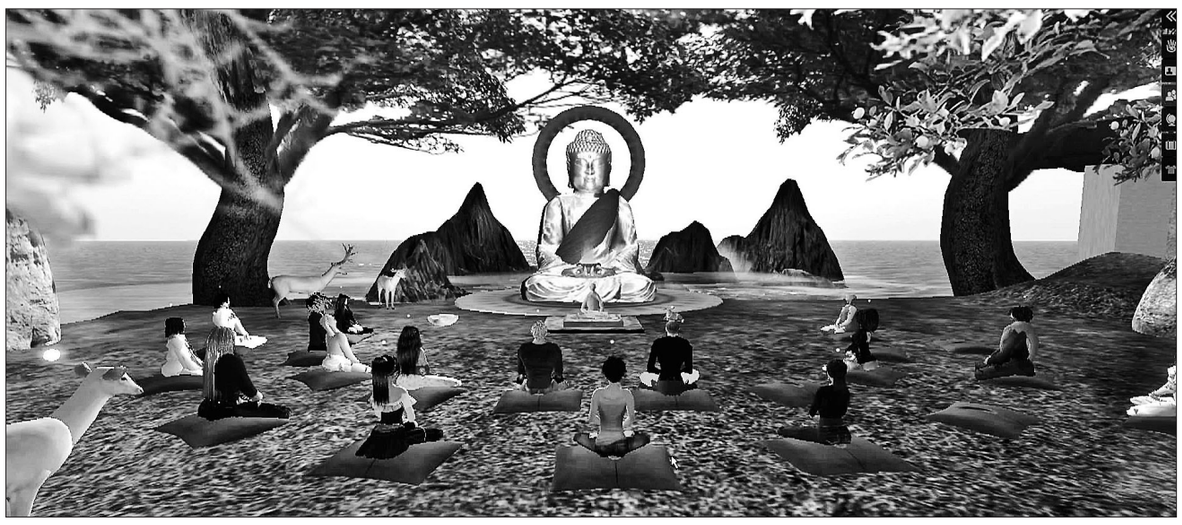
이 같은 VR 기술이 상용 · 대중화되면 인간의 생활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교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가상 사찰을 통한 법회, 의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린든랩에서 개발한 온라인 VR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지정해 플랫폼에 들어서면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 된다. 공부를 해도 되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이는 '린든 달러'라는 화폐가 통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불교수행과 신행생활도 이뤄진다. 그 가상공간 안에서 붓다 센터라는 대규모 불교 명상 사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870만 명이 10년이 넘게 즐기고 있는 '세컨드 라이프'를 보면 이미 현실과 가상이 무너져 있음을 알게 한다.

현실도 가상도 모두 '허상'

그럼 불교에서는 이 같은 VR을 어떻게 봐야할까.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교계도 사이버공간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인식 논의들이 꾸준히 있어왔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펴낸 〈디지털시대의 문화변동〉(2001)에 실은 논문 '힌두교와 불교에서 가상현실의 의미'에서 "컴퓨터의 디지털 기술로 창출된 것들은 실재하지 않은 가공의 것이지만, 이를 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일찍이 세계를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헛것'이라고 간주한 인도의 현자들은 이 세계가 컴퓨터의 가상현실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베단타 철학에서는 가상현실을 마야로, 불교에서는 망분별이라고 불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린든랩에서 개발한 온라인 VR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의 붓다 센터 모습. 이곳에서 사람들은 아바타를 통해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는 등 신행생활을 영위한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VR기술 개발에 IT업계 촉각
게임 등 감각매체 발전 전망
VR사이트 '세컨드라이프'서는
불교센터 운영… 경계 무너져

감각 인식되는 현상은 '가상'
VR · 실제 현실 결국 환영일뿐
실제 · 가상 통합 불교 윤리 필요

이어 "실상은 수시로 가상이 되고, 가상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눈 앞의 것은 현실'이라는 고정 관념 속에 의존해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VR도 실제 현실인 양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 미학을 전공한 명법 스님도 '디지털시대의 불교예술 혁신'(2012)에서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처럼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미지를 변형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실 못지않게 현실적인 것으로 체험된다"면서 "동일한 현실성을 갖는 VR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경험과 현실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번뇌'

결국, VR이라는 과학기술을 제외하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인간 인식기관인 육근을 통해 이뤄진 번뇌와 허상이다. 문제는 이같은 번뇌가 자본과 만난 기술이 결합될 때 나타난다.

실제 VR 개발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군은 △섹스 △게임 △스포츠다. 미국 온라인 포르노 업체 노티 아메리카가 올해 1월 VR 포르노 콘텐츠를 발표하며 "올해 말이면 1000~2000만 명이 VR 성인물을 시청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가중시킨다.

이에 대해 정승석 교수는 "컴퓨터에 의한 가상 현실은 우리를 가상 속에서 또 하나의 가상으로 끌고가는 세계인 것"이라며 "오직 여기에 탐닉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상의 교란이 초래할 이성의 교란이나 마비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VR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을 통합해낸 새로운 윤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된바 있다.

김유신 부산대 교수와 윤종갑 부산카톨릭대 겸임교수는 논문 '〈중론〉과 가상현실의 형이상학'을 통해 "VR은 실제 세계를 벗어나는 독립적인 세계가 아니라, 언제나 보금자리인 현실세계에 회귀해 자신의 의미와 방향을 획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두 세계가 갖고 있는 상의성을 잘 해석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통합시킨 새로운 윤리와 삶의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다르면서 같았던 박한영과 이능화

고영섭 교수, 세계불교학硏 세미나서 비교 ·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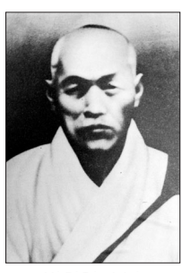
영호당 박한영 스님(1870~1948)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학승이자 시인이며, 선지식이었다. 이능화(1869~1943)는 재가자이면서도 불교를 깊게 연구했던 학자였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박한영 스님은 임제종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불교운동을 이끌었고, 〈조선불교통사〉와 같은 명저를 남겼음에도 이능화는 대표적인 친일 사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박한영 스님과 이능화의 행적과 연구방법 등을 비교 ·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3월 12일 세계불교학연구소 3차 세미나에서 '영호당 박한영과 상현 이능화의 학문과 방법'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고 교수는 박한영 스님과 이능화가 전통의 재현과 현대화의 통로를 모색했던 선지식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았다. 또한 문학 · 역사 · 철학(이하 문사철)의 전통을 계승하려 했다는 점도 유사한 부분이라고 봤다.

고 교수는 "박한영 스님은 선사 · 율사이면서도 국학 전반에 대해 박학했고, 이능화 역시 한국 종교와 민속, 지리에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면서 "이들의 학문적 기반이 불교를 기저로 하고 있었고, 불자로서 당시 한국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회한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박한영 스님

이능화

행적 · 연구방법 등 비교하면
문화주의 · 민족주의로 귀결
"학자 이능화 재조명 필요"

이어 "박한영 스님은 문사철 중 문학과 철학에 집중했고 이능화는 만년에 역사와 문화에 치중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몸소 보여준 것은 문사철의 계승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통사(通史)를 기술하면서 민족적 입장을 대변했던 것도 유사한 부분이다. 박한영 스님은 불교사 전체를 개괄하는 통사로서 〈불교사람요〉를 강술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세계불교의 현황을 짚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몇몇 오류와 서술 상의 한계를 보이지만, 1930년대 한국불교는 근대불교학의 성과를 반영해 체계적 불교사 교재를 편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능화도 한국의 불교사를 집대성한 〈조선불교통사〉를 기술했다. 고 교수는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를 통해 민족주의, 문화주의, 문헌실증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불교통사〉는 불기(佛紀)를 먼저 쓴 다름 우리의 기년, 주변국의 기년을 서술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석에서도 이능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영 박사(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이능화를 친일로 낙인찍은 것은 이기백 선생 등이 있던 한국사학회다. 이들은 항일 아니면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역사를 봤다"면서 "이능화도 민족의식이 철두철미했다. 새로운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하다니 료타이와 후카우라 세이분 △말라라세케라와 자야틸라케 △에드워드 콘즈와 램버트 슈미트하우젠 △도널드 로페즈와 루이스 고케즈 등에 대한 연구 방법 비교가 이뤄졌다.

신성민 기자

중국 종파불교 원류 '지론종'을 살피다

금강대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혜원' 국제세미나

지론종은 인도 유식학자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에 대해 주석을 단 〈십지경론〉을 연구했던 분파다.

510~580년까지 중국 북부에서 융성했던 지론종은 천태 · 화엄 · 선 · 정토 등 중국 종파불교가 성립에 초석이 됐다.

중국불교 사상의 원류 지론종을 탐구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는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론종(地論宗) 문헌과 정영사 혜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국불교 사상사의 뿌리와 같은 지론종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돈황 사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론종도 주목받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론종과 관련한 돈황 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또한 지론종을 대표하는 정영사 혜원 스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다수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성카이 중국 청화대 교수의 '승현(僧賢)과 업성 불교-대제고사문대통승현묘명을 중심으로' △오타케 스스무 일본 하나조노대 강사의 '지론종의 불신론' △박보람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초빙교수의 '지론종 육상설 고찰' △창루 베이징 중국불학원 강사는 '지론사에 대한 고찰'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돈황 출토 지론종 교리집성문헌 스타인 613V 제21장 경변오주지번뇌의에 보이는 아비달마 교리에 대해서' △츠리메이 일본 쓰루미 대학 불교문화연구소 준교수는 '속고승전 본문 및 그 특색-권8에 실려 있는 정영사 혜원전을 사례로' 등이 발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 2560(2016)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4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4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4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초발심,사미율의,치문	서장,도서,선요,절요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기신론	원각경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 장 법 성
경남전문강원 강원장 호 명 합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6. 4. 2(토) 오후 1시부터 ~ 4. 3(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10,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